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22년도 제1호

조지아 출신부제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여러분의 가르침이 하느님 백성을 위한 양식이며,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기쁨이고 버팀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말과 모범을 통해 여러분이
하느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2016년 4월 17일 사제 서품식 강론 중에서

➤ 피아첸차 추기경의 사순 메시지

조지아 교회의 희망, 새 사제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 세계 신학교와 신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분명 우리 현시대의 가장 생산적이고 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만연해 있는 양심의 혼돈, 자연법칙 위배, 하느님 자리에 '나'를 세우고 그리스도교를 구속력 없는 종교 교리로 폄하하려는 시도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행동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일인지 알게 됩니다. 세속화와 무신론은 거룩한 장소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고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내용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기술과 복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영적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숙이 자리 잡은 실존적 불안의 희생자이며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생활 안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제의 파견은 결정적인 의미와 시의성을 갖습니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충만하고 순수하고 급진적인 그대로 온전하게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사제는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힘을 세상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파견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제들은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목적으로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공격을 이겨 낼 수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잇는다면 위험에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맞추고 세상과 뒤섞여 완전히 '세속적인' 사제가 되거나 더 이상 변화시키는 효모가 되지 못하는 사제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위해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견고한 성직자 양성을 후원하도록 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사제들을 서품하시는 것은 사제들을 특별한 계급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언자로 만들기 위해서이며,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지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십자가의 참여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봉사하게 하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고 피 흘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 집의 수호자이며 당신 뜻의 선포자, 신비한 성사의 봉사자이자 집전자로 임명하신 그들을 당신 사랑 안에 보호하소서. 그들은 몰이해에 부딪치고 세상으로부터 적대시되고 여론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이해하고 돕고 지원하는 영적 가정으로 그들을 에워싸 주소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정체성을 증명하는 충직하고 거룩한 사제들의 선물과 위로를 당신 백성이 누리게 하소서. 주여,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의 말을 빌려 당신께 청하옵니다. 그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힘과 더불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도 주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문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 우리가 성 암브로시오의 대답처럼 "현명한 사제의 가슴속에서"라고 답할 수 있게 해주소서.



ACN 재단장
마우로 피아첸차 추기경

Card. Mauro Piacenza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케냐 투르카나의 선교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2022년 제 새해 소원에는 후원자 여러분이 늘 보여 주시는 자비와 성실에 대한 진심의 감사, 그리고 여전히 유행이 끝나지 않는 팬데믹을 극복하고 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질병을 특히 서로에 대한 책임감 안에서 이웃 사랑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D. 본 회퍼) 있습니다.

ACN은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75년 전부터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으나 우리는 점점 더 큰 과제 앞에 서게 됩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자행되는 그리스도인 박해를 대중들은 어깨 한 번 으쓱하면서 그대로 수용하고, 많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박의 여지 없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차별로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일깨우며, 우리의 용기를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런 전개에 맞서 저항할 기회가 있습니다. 용감하게 이 기회를 이용한다면 새해도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복된 새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덴

Thomas
Heine-Geldern

2022년 새해는 ACN 설립 75주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1947년에 설립된 교황청 재단 ACN이 7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처음에 ‘동쪽 사제들의 지원(Ostpriesthilfe)’으로 시작해 오늘날 전 세계의 박해받고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영적, 물질적 지원과 원조를 수행하는 국제 사목 원조 기구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념비적인 해를 계기로 수백만 이웃 사랑의 기적을 행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람들을 움직여 화해의 행동과 큰 희생으로 이끌었던 “처음에 지냈던 사랑”(묵시 2,4)이 우리 가슴속에 새롭게 타오르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상은 타락하고 방향을 잃은 채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시 치명적인 그릇된 길을 따라가며 ‘도적들의 손아귀’로 떨어졌습니다.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내실 수 있는 선하신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이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ACN 또한 이 사랑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양들을 하나 하나 찾아다니고 인도하며 치료하고 먹이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이 사목적 돌봄이 ACN의 핵심 특징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돌보시며 당신께서 피 흘리는 대가를 치르셨던 당신 양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이런 하느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ACN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신앙의 증거’와 ‘성사 거행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친교’라는 삼중의 형태로 표현되는 교회의 보편적인 사목적 사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삼중 임무에 관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Deus caritas est)」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임무들은 서로를 전제로 하며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하신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때, 그분에 의해 성사들로 이끄심을 받고 기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고 세상을 정말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양들을 흠여 놓고 양들의 목숨을 뺏으려 하는 ‘늑대와 도적들’에 맞서 오직 선하신 목자의 사랑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착한 목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훌륭한 이 임무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1티모 2,4)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ACN 설립 75주년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럽은 폐허 상태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망자와 실항민, 초토화된 수많은 도시와 파괴된 영혼들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CN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중요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물질적 곤궁의 구제가 아닌, 바로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베렌프리트 신부와 난민 어린이들

증오와 절망으로부터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ACN 설립자 베렌프리트 판 슈트라텐 신부(1913~2003)의 관심사는 신앙을 강화하고 화해를 촉구하며 사랑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배낭 멘 사제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동쪽에서 추방되어 광활한 지역 안에 여기 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독일 가톨릭 신자들이 이 사제들이 보살피야 했습니다. 추방되어 쇠약해진 사제들 중 많은 이가 먼 길을 걸어 다니는 노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ACN은 사제들에게 오토바이를 공급했습니다. 그 밖에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말씀으로만 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사제들은 의복, 생필품, 의약품 등 구호 물품도 받았습니다. 어느 어린 난민 소녀에게는 인형 하나, 초콜릿 하나가 하느님 사랑을 보여 주는 강력한 표징이었고, 그렇게 그 소녀가 나중에 수녀가 되어 인도로 가서 수많은 고아들을 위한 새로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적인 곤궁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호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선하고 중요한 일입니

다. 그러나 흔히 간과되는 깊은 정신적, 영적 곤궁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것이 다른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하느님의 말씀, 기도와 성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에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거나 가난으로 고통받는 곳에서 이 ‘양식’을 전하는 것이 75년 전부터 지금까지 ACN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성사를 베풀고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 넓디넓은 지역을 걸어 다닙니다. 산이 많고 외딴 지역에 속하는 **마다가스카르** 이호시 교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르맹 라하사손 신부는 이곳에서 16개 공동체를 돌보고 있습니다. 라하사손 신부는 산악 지대의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가기 위해 8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동료 사제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ACN은 설립 75주년을 기념하며 ‘오늘날의 배낭 멘 사제들’ 10명에게 모페드* 한 대씩, 약 4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페드: 모터와 페달을 갖춘 자전거의 일종



베낭을 멘 사제들 (1952)



마다가스카르의 모페드 지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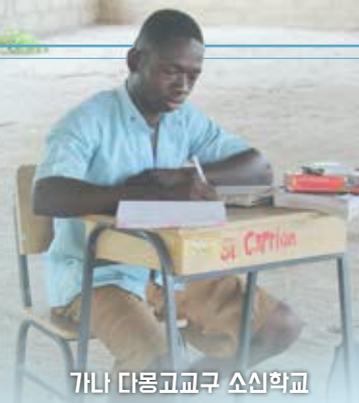
중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난민들 (2022)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추방된 사람들 (1945)



ACN 사순·부활 캠페인

고통받는 교회의 성소 계발과 육성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가나 다롱고교구 소신학교

몇 해 전, 저는 본당 사목 위원회로부터 장기적인 목표를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때 “5년마다 새 사제의 첫 미사 봉헌!”이라는 저의 제안은 다른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제 성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기도가 필연적이라는 것에 대한 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제 양성을 후원하는 일은 ACN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ACN은 전 세계 신학생 중에서 8명 중 1명의 성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지도 신부와 교육자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

해 달라는 요청도 점점 더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사제를 위해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들이 신앙과 사제로서의 생활 방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 주고 요구되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신학생들을 사목 활동에 적합하게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훌륭하게 교육받은 열의에 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자비로운 후원 덕분에 ACN이 이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박사

고통받는 교회의 신학생을 위한 영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ACN과 함께하여 주세요!



정기기부, 일시기부를 통해 후원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QR후원으로 기부 등록 또는 아래 후원계좌로 기부금 입금 가능합니다.

QR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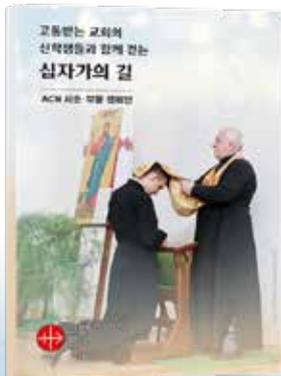


ACN 2020년 지원 신학생 14,009명

신학생 양성 및 훈련 지원, 신학교 운영, 운송수단 지원 등

아시아	44%	아프리카	34%
라틴아메리카	17%	동유럽	5%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 (사)고통받는교회돕기한국지부



「고통받는 교회의 신학생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우측 QR신청을 스캔하시면, ACN 2022 십자가의 길 소책자를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또는 이웃분들과 고통받는 교회의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래 SNS 해시태그를 통해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



#고통받는교회돕기 #ACN십자가의길

QR신청





“저는 오직 사제 외에는 다른 무엇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르멜회
페데리코 신부와 수련자들

아프리카는 사제 성소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대륙입니다. 현재 전 세계 신학생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인입니다.

다니엘 아벨 이날구는 어릴 때부터 사제직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본당에서 만난 성직자들에 대한 전진난만한 감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사제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되지 않겠다.’라는 소망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들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나이저리아**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현재 다른 58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별써 유기 서원을 한 오코예 키지도 추쿠에부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자로서의 제 삶이 경이롭습니다. 기도와 연대, 학업, 형제들과의 공동생활이 있는 삶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화합하는 정신과 마음으로 우리 삶의 경험들을 나누며 하느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제가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바칠 수 있는 충실하고 거룩한 사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으로 신학교의 책임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관구장 앤서니 카누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린 열악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소박하고 검소하게 생활을 해도 이 많은 성소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삶을 하느님께 바치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 중 한 사람도 돌려보낼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르멜 수도회 역시 수많은 성소자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난 2021년은 가르멜회가 선교를 지속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71년, 머나먼 미지의 땅으로 길을 떠났던 용감한 네 명의 이탈리아 선교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이 싹튼 것입니다. “잘 익은 열매들과 아직 성장 중인 열매들이 달린 나무가 자라났습니다.” 페데리코 트린케로 신부의 말은 이미 ‘준비를 마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가르멜회 신부 14명과 이웃나라 카메룬 출신을 포함하여 현재 사제 양성 교육을 받고 있는 43명의 젊은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향과 그들 교회의 미래가 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페데리코 신부는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젊은 수도자들 모두를 교육하는 일은 매우 힘든 도전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매일 이 도전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다시 ACN의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기에, ACN은 약 33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떠난 젊은이들을 위해 여러분이 하느님 섭리의 도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린과 정결과 순종,
가르멜회 종신 서원식



“요아킴,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할 방글라데시의 일꾼들

“하느님의 사랑이 때로는 납득하기 힘든 길을 가지만 그 사랑이 도달한 사람들은 항상 발견될 수 있습니다.”라고 베네딕도 16세 전임 교황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을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제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느꼈습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요아킴 로빈 헴브롬이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신부님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소박함과 영성과 헌신, 그리고 가난한 이와 병든 이,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를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성사를 베풀기 위해 지치지 않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삶을 봉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요아킴이 대학에 다닐 때 학우들은 그의 이러한 계획을 단념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요아킴은 그의 영적 지도자에게 마음을 털어놓았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라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요아킴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요아킴,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아킴은 학업을 마치고 신학교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라틴어와 그리스어, 히브리어 공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성을 다해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교 생활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제 양성 교육은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도록 문을 열어 줍니다.” 현재 마지막 학년인 그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카의 성령 신학교의 91명의 신학생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요아킴도 거룩한 사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국민 다수가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 신학생들의 가족과 교구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계속 따를 수 있도록, ACN은 올해 약 3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쿠바에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라자르가 어렸을 때 벌써 ‘미사 놀이’를 하고 알렉산더가 어릴 때 열정적으로 종교 서적을 탐독했던 반면, 디온은 청소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성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가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사회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진정한 빛이신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기 위해 빛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는 것’, 오직 이것뿐입니다. 거의 60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통치 이후 쿠바는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최악의 상태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돌볼 사제가 필요합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 신학교 학장은 말합니다. ACN은 올해 이 신학교에 약 683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쿠바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고자 합니다.

하느님 손 안의 펜

작은 조지아 가톨릭교회에 큰 경사가 있습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여섯 번째로 조지아의 젊은이가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가 이 지역 교회의 미래를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사방에서 라바티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데딕토 수녀회 마당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신자들과 사제들, 수도자들이 찾아오고 끝으로 교황 대사와 함께 주교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르고 성가대는 미사 성가를 최종 연습합니다. 즐거운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입니다.

개방적이며 조지아 정교회를 믿는 조지아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서방과 동방 교회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12세기 이래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지배 기간 동안 교회의 모든 생활은 거의 완전히 중지되었습니다. 1994년, 최초의 선교사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주제페 파소토 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빌리시에만 가톨릭 교회가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곳의 가톨릭 신앙은 묵주를 통해 구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기 위해 가정에 모였고 할머니들은 그 일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교리교사들이, 그리고 그 다음은 사제들도 양성되어야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물론 놀라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교회의 목자, 즉 자국 출신으로 자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자국의 언어를 말하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베카 칠린가라슈빌리가 그런 사제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 조지아 남부 아랄리에서 성당 옆에 살았습니다. “저는 성당 없는 삶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복사였던 베카는 활동력 있는 사제들을 현장에서 보고 감탄하면서 사제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가 주면 항상 몇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사제가 되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 때 그에게 군대 소집령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군대는 제게 예비 신학교 같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은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파소토 주교는 신학생 후



베카 칠린가라슈빌리의 사제 서품식 (2021)

보들을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로 보내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카자흐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거친 스텝 지대에서 지내면서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에는 견뎌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신학생들의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온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스베키스탄 출신 신학생도 있었고 카자흐스탄의 신학생들조차도 독일인이나 폴란드인의 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뛰어난 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제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애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칠린가라슈빌리 신부는 이제 아랄리에서 사제로서 봉사할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 손 안의 펜이 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계획에 따라 그리시는 것을 제 고집으로 막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하면 그것이 교회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무엇이 여기 이 사제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인가?’라고 묻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ACN은 베카 칠린가라슈빌리 신부의 양성을 지원했습니다. 카라간다에는 올해도 다시 우리의 도움을 희망하는 새로운 사제직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ACN은 그들에게 약 2600만 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동대

막 전쟁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피난 중에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몇몇은 어머니들이 길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박처럼 쏟아지는 폭탄과 추방과 어둠을 뚫고 성소의 불꽃을 보호했고, 지금의 ACN 본부가 있는 독일 서부 **퀸히슈타인 임 타우누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십여 명의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야만적으로 중단되었던 사제직으로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태스크포스(기동대)'를 구성하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흩어져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산주의의 통치를 받게 된 유럽 동부 지역을 위한 사제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에서 추방된 이들을 위한 신학교가 1946년 11월에 옛 병영이었던 곳에서 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ACN의 첫 번째 핵심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사제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재정적 후원을 받은 곳은 특히 여러 서방 국가에 있는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을 위한 신학교였습니다. 1959년에 벌써 19개 신학교가 있었고 그곳에서 2천 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동유럽에서의 미래의 사제직 수행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철의 장막' 뒤의 국가에서 박해받는 교회의 은밀한 사제직 양성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졌습니다. ACN은 당시에 이미 '더 나은 미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가 붕괴할 날을 대비해 동유럽 교회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



묵주 기도 행렬 중인 리비우의 신학생들



ACN은 리비우 신학교 설립과 신학생 양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했습니다. ACN의 당시 활동명이었던 '동쪽 사제들의 지원(Ostpriesterhilfe)'이 보기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정권의 붕괴는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긴 시간 동안 기만당해 하느님을 빼앗겼던 영혼들이 이 끝 목자로서 사제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989년,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했을 때 교회는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폐쇄되거나 파괴되었던 많은 신학교가 ACN의 지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ACN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리비우에 신학교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특히 마음을 썼던 이 신학교는 2005년 8월에 성대하게 준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 상급 대주교였던 루보미르 후사르 추기경은 신학교를 "순교자 교회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칭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의 박해를 받은 이곳에서 226명의 신학생이 행렬을 이루어 도시 전체를 행진하는 모습은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폴란드와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러시아,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의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수많은 후원자들의 후원에 힘입어 마침내 다시 수백 명의 젊은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롭게,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이사 6,8)



고향에서 추방당한 신학생들이 참여한 퀸히슈타인 성체 거동 행렬 (1950)



퀸히슈타인 신학교 성당 유배자들의 어머니 성모상



변방으로 부름받은 사제들, 산악 지대의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의 변방으로 가라.'라고 교회에 거듭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세상의 많은 외딴곳에서 교회만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인도 북동부의 모퉁에 사는 성 십자가 수도회 신부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를 말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레시 카구 신부의 말처럼 교회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입니다. 이곳 신자들은 대부분 카시족 사람입니다. 그들은 광활한 계곡과 숲이 펼쳐진 외딴 산악 지대에 삽니다. 카시족은 옛날에 귀신을 믿고 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오래 되지 않은 과거까지 뱀귀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최초로 가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약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을 실제로 실천하고 신앙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본당에서는 학교를 세우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도우며 사람들이 좀 더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 십자가 본당은 5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가기를 갈망하는 가톨릭 가정 614세대가 이 본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당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신부는 지붕으로 비가 새고 금방 아주 더워지는 작은 양철 지붕 오두막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본당의 서류들을 둘 공간조차 넉넉지 않습니다.



인도 북동부 외딴 산악지대
하느님 나라를 위한 건축



사회의 변방, 과테말라 사람들
가운데 자리한 성 십자가 본당



본당 사제는
아직 멀리
떨어진 곳에
지냅니다.

카구 신부가 ACN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 십자가 수도회 신부들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운명을 나눠 지고 그들을 위한 희망의 표식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본당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의 설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수많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이 외딴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사무와 상담 공간, 그리고 본당에 용무가 있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도 갖춘 좀 더 넓은 사제관을 지을 수 있도록, **ACN이 약 250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겨우 1년 전에 설립되었으나 매우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과테말라** 북동부 섹션 본당도 '사회의 변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딴 산악 지대에 있는 본당입니다. 본당 내 21개 마을 중 어느 한 곳에도 전기나 전화가 없고 도로들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신자들은 마야족에 속하는 척치족입니다. 이곳 본당 사제도 역시나 초라한 임시 거처에서 지내는데, 본당으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신자들이 마땅한 보살핌을 받기에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본당 가까이 새 사제관을 짓기 위해 신자 가정에서 모금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가난하여 희생할 각오는 있지만 자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가 신자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ACN이 약 146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우리가 여분으로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는 ACN 「사랑의 메아리」를 성당의 벤치 위에서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놓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읽고 저는 선교사들과 사람들의 큰 어려움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물자가 부족한 반면, 어쩌면 그들에게 쓸모 있을 많은 것들이 제가 사는 이 대륙에서는 수없이 버려지고 파괴됩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인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후원금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분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한국 후원자분들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QR편지 작성하기

보답의 기회

제 후원금에 고마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제 공로가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슬로바키아 교회가 박해받을 때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에게 연대 의식을 보여 주었고 우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무언가 보답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ACN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본당과 가정에서,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저는 ACN을 후원할 수 있는 쉬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 모임 안에서 저희가 빈 깡통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모인 깡통이 대략 10~13킬로그램이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얻는 수익을 ACN으로 송금할 것입니다.

고향에서 버틸 용기를

「사랑의 메아리」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편물을 즐겁게 읽으며 자극을 받아서, 그 안에 언급된 서아시아의 상황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에서 버틸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놀라운 사도직

저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수도자입니다. 최근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퍼져 있는 엄청난 규모의 고난에 압도당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동시에 우리에게 ACN이라는 놀라운 사도직이 있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ACN 2021 대림·성탄 캠페인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CN 한국지부의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 지원



총 **1,034명** 참여



215,019,883원 모금

(21.11.10 ~ 22.01.18)

1. 시리아 어린이 '희망'의 옷 전달 **3,145벌**
2. 시리아 어르신 '사랑'의 밥 1년치 도시락 지원 **350명**
3. 그 밖에 그리스도인 난민 지원 **83,778,573원**



희망의 옷



사랑의 밥

사진 제공: 시리아 알레포의 예니 수녀 (예수 메아리 수녀회)

ACN 한국지부 신임 이사장,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2022년 1월 1일, ACN 한국지부 신임 이사장으로 서울대교구 동서울 지역 및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가 취임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사말을 발표하며, ACN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사장 인사말

하느님 사랑과 자비!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id to the Church in Need, 이하 ACN)」는 다른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박해받는 가톨릭교회를 돕는 교황청 사목 원조기구입니다.

바로 사도의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기 에'(로마 12,5 참조)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1코린 12,26)



ACN 이라크 교회를 위한 특별 미사와 강연회 (2016)

ACN은 그리스도의 몸인 박해받는 교회의 고통을 알리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행동함으로써 물질 지원과 함께 교회 재건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위해 교회를 재건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신학생을 후원하며, 사랑의 베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지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더 먼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가톨릭 미디어를 마련함은 물론 '어린이 성경' 제작 및 보급으로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도록 ACN은 후원자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이사장
주교 유경춘 티모테오

☺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교황청
재단

